

##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비행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혜 지                      이 수 정<sup>†</sup>                      윤 희 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 피해자로 인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폭력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비행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정작 그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아보고, 그러한 정신건강과 비행위험성의 관련성이 인과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일반 학생과 소년원 또는 분류심사원에 수감 중인 남, 여 청소년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PAI에 나타난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일반 학생들과 형사사법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로 나누어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일반 학생들보다 형사사법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PAI 검사 결과 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불안(ANX),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비지지(NON), 치료거부(RXR), 지배성(DOM), 온정성(WRM)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비행위험성 간의 매개효과를 보이는 정신건강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불안, 정신증, 대인애민성, 자살사고, 수동적 대인관계 성향이 부분적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의해 매개되어 피해 청소년들의 비행, 즉 가해자화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비행위험성

\* 이 논문은 교신저자의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인문사회기초 중견연구 과제지원사업(NRF-2014S1A5A2A01010828)의 결과물임.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94-6

E-mail: suejung@kyonggi.ac.kr

## 서론

가정폭력은 서로를 보호하고 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와 피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가정폭력은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벗어나서도 피해 자녀의 사회 부적응, 심리적 어려움과 같은 2차 피해를 양산해 낼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 노출된 학대 경험은 피해 자녀의 인성발달 및 성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쉬운데, 이러한 결과는 피해 자녀가 범죄 또는 비행에 노출될 경우 취약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가정 내 학대 피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폭력이나 학대를 행사하도록 폭력의 순환(cycle of violence)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광도, 2005). 이처럼 부모의 폭력 행위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나타나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 현상은 사회학습이론이나 일반긴장이론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황성현, 이강훈, 2013).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 또는 일탈 현상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말한다(Akers, 1998).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은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이 있는데 가정폭력에 의한 비행 또는 일탈 현상은 모방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방은 기존에 없던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이후에 유사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관찰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찰을 포함한다. 모델링의 대상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강화의 과정을 통해 정해지기 쉽다(Akers, 1998). 학대를 가하는 대상이 가정 내에 존재한다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그 대상이라면 강화는 비교적 더 빠르고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긴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결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여러 긴장요인을 통해 우울, 분노, 좌절감 등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Agnew, 1992). 긴장 요인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달성의 실패,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 세 번째는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정폭력과 관련된 긴장 요인은 부모의 학대, 또래 아이들의 괴롭힘, 범죄 피해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이 야기하는 부정적 감정이 어떠한 것들인지 확인하게 되면, 그러한 정신건강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비행 행동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가정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개인의 정신상태가 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적응을 경험하고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성격의 발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재엽, 양혜원, 1998). 즉, 정신건강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적응을 도와주는 정서적 반응과 역경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성격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 개념을 이용해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피해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Hilbernam, 1980; Rounsaville, 1978; 김광

일, 1985; 김재엽, 양혜원, 1998; 김주현, 2006; 양현아, 2006).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해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폭력 피해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해자들은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가정폭력과 관련된 심리적 증상을 알아보는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과 자살사고, 불안, 대인예민성, 공격성, 적대감 등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Jaffe, Wolfe & Wilson, 1990; Gleason, 1993; 신은주, 1997; 김주현, 2006; 양현아, 2006; 이옥희, 박중규, 2011; 이윤호, 배정환, 2012).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 형성,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 등을 습득하게 되므로,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적응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1991년 진행된 권자영의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와 관련하여 6-12세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확인하였는데 신체적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과 신체적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의 정신건강을 비교했을 때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정서적 불안정, 강박-우울, 과잉활동, 정신병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권자영, 1991). 이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성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의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는 사회적 기술이나 적응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경미한 신체적 학대,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피해 유형을 분류한 후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그에 따른 정신건강을 살펴 본 연구가 있는데, 정서적 학대와 경미한 신체적 학대에서는 신체화 증상, 우울증, 강박증, 대인예민성,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과 학대경험의 빈도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신체적 학대에서는 우울증, 장소불안, 대인예민성,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양혜원, 1998). 2008년에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넓혀 연구가 실시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에서 SCL-90-R을 사용하여 가정폭력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간의 정신건강 수준을 비교했을 때, 정신과적 증상의 모든 차원에서 가정폭력 경험 집단이 비경험 집단에 비해 증상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SCL-90-R을 사용하여 확인한 정신건강은 우울과 불안, 적대감, 대인예민성에 대한 증상이 포함되어 있다(남영옥, 2008). 이런 연구결과들을 통해 자녀학대의 경우 아내학대와 비슷하게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지만, 적대감과 편집증 등의 문제로 대인관계 또는 사회적 적응 능력에 부정적 영향도 흔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비행의 관련성

폭력의 세대 간 전이 현상은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Bandura는 양육자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나 공격성 등은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주장했다(Bandura, 1971). 2004년에 실시된 국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 집단 괴롭힘의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청소년의 사회인지에 변화를 일으켜 간접적으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소명, 현명호, 2004). 뿐만 아니라 가정 내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Sternberg, Lamb, Greenbaum, Cicchetti, Dawud, Cortes, Krispin & Lorey, 1993; Baldry, 2003; Carrie, Todd, Cindy, Emiko, Roy & Russo, 2010;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신선인, 2008; 김재철, 최지영, 2011). 위와 같은 연구들에서 유사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피해 자녀가 또 다른 범죄를 행하는 가해행동에까지 영향을 끼

친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박우현과 이수정의 연구에서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공격충동, 대인충동, 대물충동, 언어공격과 같은 공격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우현, 이수정, 2013). 이처럼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폭력이 전이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비행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청소년의 가해자화가 정신건강 지표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PAI 척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다. 두 번째,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비행위험성의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다. 세 번째, PAI 척도 점수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비행 위험성에 대한 매개 효과로서 유의미할 것이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A중학교에 재학 중인 175명과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명, 그리고 분류심사원에 수감 중인 68명과 정심여자산업정보학교(안양소년원)에 수감 중인 학생 77명으로, 총 338명의 청소년이 조사 대상자

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무응답이 90% 이상이거나, 줄 세우기 응답, PAI 검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는 등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자료들이 발견되어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92명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명, 그리고 분류심사원에 수감 중인 48명과 정심여자산업정보학교(안양소년원)에 수감 중인 학생 57명으로, 총 215명의 청소년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분류심사원, 소년원으로 4개의 대상자 군으로 분류하여 설문지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설문지를 작성할 당시 집단 참여가 아닌 개인 참여로 이루어져 다른 대상자 군과 다르게 불성실 응답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측정 도구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가 정신건강과 비행 위험성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구 대상자에게 가정폭력 피해경험, 피해횟수, 피해내용에 대해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횟수는 일회성인지 그 이상의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확인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여 연구 대상자가 혼욕을 오인하여 잘못 보고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일회성이거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값을 부여하고, 2회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1값을 부여하였다.

**비행위험성.** 비행위험성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비행축발요인조사서를 활용하였다. 2005년에 비행축발요인조사서에 대한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고, 범죄심리사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이수정, 조은경, 2005). 본 연구에서는 비행축발요인조사서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 도구 평가 방법의 변형은 다른 여러 도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APSD(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의 경우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사용되었으며 그에 대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Frick & Hare, 2001; 장유정, 2010; 김지연, 2012).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피검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록 조사를 통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이수정, 이혜선, 이수경, 김현정, 2008; 이수정, 김혜선, 2008). 비행축발요인조사서는 6가지 요인으로 나뉘어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의 구조, 가족의 기능적 역할,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 전력 및 환경, 개인적 위험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가족의 구조와 가족의 기능 요인인데 가족의 구조는 보호자의 존재,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해 확인하고, 가족의 기능 요인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학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이때 가족의 구조 요인은 가정폭력 발생 여부와 중복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대 여부가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는 가족의 기능 요인은 가정폭력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하고 최종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의 비행위험성은 가족의 구조,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 전력 및 환경,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가족의 기능 요인을 제외한 항목들의 Cronbach's  $\alpha$  계수 값은 .78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연구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PAI-A(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for Adolescent) 단축형을 실시하였다. PAI-A의 경우 방대한 문항으로 청소년들이 실시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하여 단축형으로 실시하였다. 성격평가 질문지(PAI)는 1991년 Morey에 의해 개

발된 객관적인 검사 도구로서,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2006년에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PAI-A와 PAI-A 단축형이 개발되었다(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이수정, 조은경, 홍상황, 2006). 2001년에 국내에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PAI 내적 일치도는 .60~.88로 나타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밀관성(ICN), 저빈도(INF) 척도를 제외하고 .77~.91의 범위로 나타났다. PAI-A 하위척도들의 신뢰도 계수의 중앙치는 .76으로 나타났다(김영환, 오상우, 임영란, 김지혜, 홍상황, 2001).

PAI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척도들을 살펴보면 심리적 문제를 확인하는 척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불안, 공격성, 반사회적 특징과 같은 표현은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비행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많은 연구에서 PAI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White, 1996; Chakin, 2002; 이남희, 이봉건, 2009; 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 그래서 PAI 검사는 균형 잡힌 성격발달을 파악하는 검사도구로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으로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PAI 검사를 활용하였다.

####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피해여부에 따른 PAI 척도 상의 정신건강의 차이와 피해여부에 따른 비행위험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PAI 척도 점수에 대한 비행위험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측정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나타난 매개효과와 통

계적 유의미성은 Sobel Test(1982)를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적합도는  $\chi^2$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대 유형 분류가 가능한지 빈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대개 잠재변수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데, 피해경험 여부는 하위요인이 생성될 수 없는 이분형 변수이다. 이분형 변수일 경우 구조방정식에서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변수로 만들어 잠재 변수인 비행 위험성과 정신건강과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해당 통계방식은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ategorical Variables'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Skrondal & Rabe-Hesketh, 2005).

## 연구 결과

###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215명 중 남자는 72명(33.5%), 여자는 143명(66.5%)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나이는 중학

생에 해당하는 14세~16세가 115명(53.5%), 고등학생 이상에 해당하는 17세~22세가 100명(46.5%)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상태에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35명(62.8%)이며, 편부모는 57명(26.5%),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16명(7.4%), 재혼 가정이 6명(2.8%)으로 나타났고, 무응답이 1명(0.5%)이었다. 대상자 분류를 보면 일반 중, 고등학생 110명(51.2%)과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 105명(48.8%)이 포함되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43명(20%)이었고,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가 172명(80%)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학생에 비해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에게서 가정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비교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PAI 척도 중 타당도 척도는 피검자의 응답 반응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므로 정신건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타당도 척도를 제외한 임상 척도, 치료고려 척도, 대인관계 척도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한대로 유의미한 차이가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15)

변인	응답범주	명(%)	변인	응답범주	명(%)
성별	남자	72(33.5)	대상자 분류	일반학생	110(51.2)
	여자	143(66.5)		소년원	105(48.8)
나이	14~16세	115(53.5)	가족 상태	부모 동거	135(62.8)
	17~22세	100(46.5)		한 부모	57(26.5)
		동거 안함		16(7.4)	
		재혼 가정		6(2.8)	
		무응답		1(0.5)	

표 2. 대상자 분류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비교 분석

변인	여부	응답범주	명(%)	$\chi^2$	p
피해 경험	있음	일반학생	9(8.2)	19.662	.000*
		소년원	34(32.4)		
		총합	43(20)		
	없음	일반학생	101(91.8)		
		소년원	71(67.6)		
		총합	172(80)		

\* p < .001

있는 척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을 참고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PAI 척도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임상 척도에서는 불안(ANX),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에서 차이를 보였고, 치료고려 척도에서는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비지지(NON), 치료거부(RXR)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척도에서는 지배성(DOM), 온전성(WRM) 척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비경험 학생들보다 우울, 불안, 정신분열병, 경계선적 특징이 더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반 학생들보다 피해 학생들의 점수가 약 5T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8년 진행된 남영옥 연구에서 우울, 불안, 적대감, 대인애민성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비경험 학생들보다 피해 학생들이 공격성, 자살관념, 비지지를 더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비경험 학생들에 비해 공격적인 생각에 쉽게 노출되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더 많으며, 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는 더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e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범죄자의 PAI 결과에서 공격성(AGG) 척도의 연관성을 언급했는데

피해 집단에서도 공격성(AGG) 척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공격성(AGG) 척도가 가정폭력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White, 1996). 자살관념(SUI) 척도는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남희, 이봉건의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연관 있는 정신건강이 비행 위험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남희, 이봉건, 2009). NON 척도의 경우 가정폭력이 부모로부터 가해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지지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대인관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피해 학생들이 지배성과 온전성의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수동적인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성(DOM), 온전성(WRM) 척도에서 일반 학생보다 약 5~6T 정도 적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타인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척도의 T점수는 수치상으로 임상적인 수준으로 해석할 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 간 T점수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의 유의미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 가설 중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비행위험성과의 영향도

표 3.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PAI 척도 평균 T점수 비교

PAI 척도	피해여부	M	SD	t	p
신체적호소 (SOM)	유	49.33	9.007	-1.163	.246
	무	47.76	7.585		
불안 (ANX)	유	51.00	11.462	-2.622	.009**
	무	46.51	9.660		
불안관련장애 (ARD)	유	47.02	10.960	-1.744	.083
	무	44.16	9.258		
우울 (DEP)	유	47.95	9.899	-.630	.530
	무	46.91	9.708		
조증 (MAN)	유	47.67	9.913	-1.445	.154
	무	45.32	7.991		
망상 (PAR)	유	45.67	11.878	.681	.499
	무	46.99	8.714		
정신분열병 (SCZ)	유	50.44	9.801	-2.952	.004**
	무	45.74	9.228		
경계선적 특징 (BOR)	유	49.30	12.108	-2.484	.014*
	무	45.12	9.256		
반사회적 특징 (ANT)	유	42.30	8.354	.389	.697
	무	42.87	8.532		
음주문제 (ALC)	유	49.88	11.228	.134	.893
	무	50.53	30.948		
약물사용 (DRG)	유	59.56	74.641	-.661	.512
	무	52.02	9.199		
공격성 (AGG)	유	47.56	9.555	-2.080	.039*
	무	44.49	8.398		
자살관념 (SUI)	유	52.65	11.761	-2.956	.005**
	무	47.02	8.441		
스트레스 (STR)	유	48.02	14.188	-.818	.417
	무	46.15	10.028		
비지지 (NON)	유	58.72	10.336	-2.186	.032*
	무	54.68	12.659		
치료거부 (RXR)	유	47.40	10.289	2.590	.010*
	무	52.38	11.517		
지배성 (DOM)	유	39.72	12.820	2.921	.004**
	무	45.52	11.331		
온전성 (WRM)	유	42.53	9.450	2.593	.010*
	무	47.02	10.303		

\* p< .05 \*\* p< .01 \*\*\* p< .001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비행위험성 비교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을 살펴본 결과, 불안(ANX),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비지지(NON), 치료거부(RXR), 지배성(DOM), 온전성(WRM)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건강이 비행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비행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비행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표 4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비행위험성의 평균 점수가 15.02(7.14),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9.19(5.54)로 나타났다(표 4).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비행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구 모형 분석

##### 연구모형의 상관관계 분석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Jaffe et al, 1990; Gleason, 1993; White, 1996; 권자영, 1991; 김재엽, 양혜원,

1998; 남영옥, 2008; 이남희, 이봉건, 2009). 그러므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가 비행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각 측정변수들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표 5는 가정폭력 피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PAI 척도와 비행위험성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피해 여부와 PAI 척도 간 상관은 NON(비지지)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RXR(치료거부), DOM(지배성), WRM(온전성) 척도들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SUI(자살관념)는 .239, SCZ(정신분열병)는 .198, DOM(지배성)은 -.196, ANX(불안)는 .177, RXR(치료거부)와 WRM(온전성)은 -.175, BOR(경계선적 특징)은 .168, AGG(공격성)는 .14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부와 비행위험성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생활은 .376, 가출경험은 .347, 가족구조는 .318, 비행전력은 .288, 개인적요인은 .2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함이 나타났다.

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7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오직 학교생활-비행전력 척도 관계에서만 0.7 이상의 상관계수가 나타났고, 이들 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 값이 1, VIF 값이 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비행위험성 비교

대상자	피해여부(명)	M	SD	t	p
전체	유(43)	15.02	7.140	-4.998	.000*
	무(172)	9.19	5.538		

\* p < .001

표 5. 측정 변수 간 상관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외해 여부	ANX	SCZ	BOR	AGG	SUI	NON	RXR	DOM	WRM	기죽구조	학교생활	가출경험	개인오인	비행전력
(1)	-													
(2)	.177**													
(3)	.198**	.685***												
(4)	.168**	.686**	.666***											
(5)	.141*	.411***	.525***	.677***										
(6)	.239***	.533***	.524***	.447***	.380***									
(7)	.132	.259***	.349***	.435***	.282***	.295***								
(8)	-.175*	-.102	-.222**	-.219**	-.138*	-.196**	-.436***							
(9)	-.196**	-.076	-.036	-.010	.120	-.105	-.355***	.396***						
(10)	-.175*	.059	-.037	.141*	.229**	-.049	-.401***	.416***	.607***					
(11)	.318***	.082	.075	.133	.132	.191**	-.151*	-.161*	-.144*					
(12)	.376***	.158*	.179**	.278***	.231**	.141*	-.378***	-.337***	-.258***	.488***				
(13)	.347***	.109	.135*	.212**	.155*	.143*	-.304***	-.230**	-.153*	.492***	.675***			
(14)	.226**	.298***	.272***	.260***	.209**	.241***	-.069	-.004	.038	.240***	.396***	.470***		
(15)	.288***	.189**	.150*	.266***	.194**	.186**	-.262***	-.280***	-.139*	.499***	.734***	.680***	.511***	

\* p < .05 \*\* p < .01 \*\*\* p < .001

**연구모형의 분석**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비행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정신건강과 비행위험성의 잠재변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chi^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적합도 지수와 함께 모형 검증을 했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 NFI로 평가하였다. Browne과 Cudeck에 따르면 RMSEA 값은 0.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이며 0.08 이하면 양호한 적합도이다. 0.1 미만은 보통 수준의 적합도로 볼 수 있으나, 0.1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2). 정신건강 잠재변수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PAI 척도를 모두 이용하여 확인하였는데, 적합도 수치가 CFI는 .638, TLI는 .517, NFI는 .622 RMSEA는 .229로 나타나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경로계수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로 계수를 나타내는 척도를 제외한 정신건강은 ANX(불안), SCZ(정신분열병), BOR(경계선적 특징), SUI(자살관념), WRM(온정성) 척도로 구성되었다. 비행위험성도 가족의 기능적 역할 요인이 제외되었으므로 잠재변수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정신건강과 비행위험성 잠재변수의 적합도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은 RMSEA 값이 .080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Bentler의 1990년 연구를 참고하여 TLI, CFI, NFI의 값을 살펴본 결과 0.9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표 6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연구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1982)도 실시한 결과 z값이 2.096으로 유의수준 .05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인 정신건강과 비행위험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가설 중 세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부는 정신건강과 비행 위험성에 유의미하게 정적 관계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도 비행 위험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은 가정폭력 피해여부와 비행 위험성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매개효과는 정신건강 중에서도 불안(ANX),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자살관념(SUI), 온정성(WRM) 척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정신 건강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 모형을 그림 1로 제시하였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모형	$\chi^2$	df	NFI	CFI	TLI	RMSEA
수정모형	99.370***	42	.901	.940	.921	.080
정신건강	15.383*	5	.962	.974	.947	.099
비행위험성	11.080*	5	.977	.987	.974	.075
			Estimate	S.E.	C.R.	p
정신건강	<—	피해여부	4.994	1.541	3.240	.001**
비행위험성	<—	정신건강	.011	.004	2.650	.008**
비행위험성	<—	피해여부	.438	.093	4.701	***

\* p≤ .05 \*\* p< .01 \*\*\*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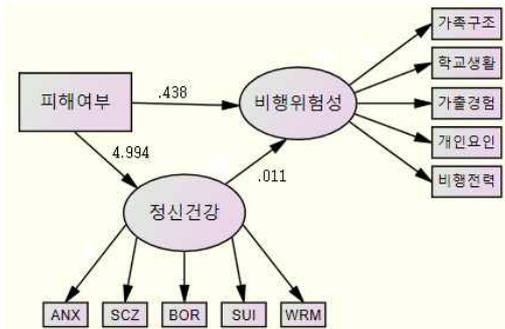


그림 1. 가정폭력 피해경험 여부가 비행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수정 모형

### 결론 및 논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라 정신건강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경험 집단이 비경험 집단보다 심리적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ANX),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공격성(AGG), 자살관념(SUI), 비지지(NON), 치료거부(RXR), 지배성(DOM), 온전성(WRM)에서 비교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Jaffe et al, 1990; Gleason, 1993; White, 1996; 권자영, 1991; 김재엽 외, 1998; 남영옥, 2008; 이남희, 이봉건, 2009). 그러나 비지지(NON)와 치료거부(RXR) 척도의 경우 정서나 성격 발달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치료 진행시 참고하기 위해 PAI에 포함되어 있는 척도로서 비지지(NON)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치료거부(RXR)는 자신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는데 정신건강의 요소로 보기엔 어렵다. 지배성(DOM), 온전성(WRM) 척도는 대인관계 하위척도로서 지배성(DOM)은 대인관계에서 주도적이고 독단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반면, 온전성(WRM)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전 연구들에서도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또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명, 현명호, 2004; 박주희, 신현숙, 2014).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 집단이 비경험 집단보다 비행위험성에 취약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비행위험성의 관계에서 불안(ANX), 정신분열병(SCZ), 경계선적 특징(BOR), 자살관념(SUI), 온전성(WRM) 척도가 부분적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불안, 정신증, 대인예민성, 자살사고, 수동적인 대인관계의 모습은 비행위험성에 노출되었을 때 더 취약하게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만성적인 정서적 불안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살 관념을 동반한 공격성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동반 자살을 고려하는 등 극대화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울, 정신분열병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뚜렷하게 존재하지만 가족 관계인 가해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온전히 가해자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결속력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인지되기 때문이다. 즉,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주요 역할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는 외부로 드러나기보다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가정에 속박당하는 것과 벗어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만일 불안이나 정신증, 대인예민

성, 자살사고, 수동적인 대인관계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가정을 벗어나기보다는 속박을 선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증오와 미움은 보통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하는 등 자신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는 자살사고를 촉진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거나, 공격성이 동반되는 경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인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등 극단적 공격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날 경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자극 추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학대받는 청소년들이 가출 후 비행집단의 일원이 되어 가족 대신 가출패밀리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비행 행동에 지속적인 가담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의 취약성이 어떻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폭력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데에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지 이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가해 청소년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변화해가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가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개입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또는 재범 예방을 위해서 행위 사실 자체에 집중하여 법적 처분의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행위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그래서 정신건강이나 성격적인 문제와 같은 관련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명령이나 치료명령 등이 법적 처분과 함께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제원, 이규호, 이민희 (2010).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별 PAI 프로파일. 법학연구, 39, 157-176.
- 기광도 (2005).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범죄간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13(2), 209-240.
- 김광일 (1985). 구타당하는 아내 50 명의 정신의학적 연구. 정신의학연구, 3, 235-256.
- 김소명, 현명호 (2004). 가정폭력이 집단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17-32.
- 김영환, 오상우, 임영란, 김지혜, 홍상황 (2001). PAI 표준화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11-329.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이수정, 조은경, 홍상황 (2006). 청소년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재엽, 송아영, 한 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재엽, 양혜원 (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37-62.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주현 (2006).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 (201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report and peer rating measures in APSD among young adolescents in Korea.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영옥 (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재효과. *미래청소년학회*, 5(3), 199-218.
- 박우현, 이수정 (2013). 청소년의 비행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경험과 보호 및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7(2), 89-128.
- 박주희, 신현숙 (2014). 가정폭력이 아동의 대인 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발달자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291-315.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 신은주 (1997).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1, 195-217.
- 양현아 (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젠더 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 1-45.
- 이남희, 이봉건 (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비행축발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27-140.
- 이수정, 김혜선 (2008).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72-273.
- 이수정, 이혜선, 이수경, 김현정 (2008).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79-98.
- 이수정, 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축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27-43.
- 이윤호, 배정환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적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형사사법연구*, 2(1), 79-110.
- 이옥희, 박중규 (2011). 심리적 폭력경험과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에서 인지요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45-460.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장유정 (2010). 반사회적 성격 평가도구의 타당도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Company.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7.
- Agnew, R., & White, H. R. (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4), 475-500.
- Baldry, A. C. (2003). Bullying in schools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7(7), 713-732.
- Bandura, A. (1971).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NY: Holt, Rinehart & Winston.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rrie, A. M., Todd, I. H., Cindy S., Emiko, A. T., Roy C. H. & Russo, M. J. (2010).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1), 53-63.
- Chakin, L. B. (2002). An offender typology based

- on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8, 121-142.
- Frick, P. J. & Hare, R. D. (2001).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 technical manual*. NY: Multi-Health Systems.
- Gleason, W. J. (1993). Mental disorder in battered women: An empirical study. *Violence and Victims*, 8(1), 53-68.
- Hillberman, E. (1980). Overview: The "wife-beater's wife"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336-1347.
- Jaffe, P. G., Wolfe, D. A. & Wilson, S. K.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Sage.
- Rounsaville, B. J. (1978). Theories in marital violence: Evidence from a study of battered women. *Victimology*, 3(1-2), 11-31.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krondal, A. & Rabe-Hesketh, S. (200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ategorical variables*. NY: John Wiley & Sons.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 White, L. J. (1996). Review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PAI): A new psychological test for clinical and forensic assessment. *Australian Psychologist*, 31(1), 38-39.

1 차원고접수 : 2015. 01. 05.  
수정원고접수 : 2015. 04. 15.  
최종게재결정 : 2015. 05. 08.

##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Damage on Risk of Delinquen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ental Health

Hye Ji Lee

Soo Jung Lee

Hee Jin Yun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Architecture, Kyonggi University

The domestic violence damage not only spouse who is exposed directly to assault but also their children. However,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juvenile who are exposed domestic violence can not be recognized as the crime victims. Although domestic violence affect harmful effects, only a few researches are identified.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negative effects which are caused by the domestic violence to juvenile's mental health and whether the relation with their mental health and the risk of delinquency has a causality. The subjects were 215 juvenile who were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students. Some of them were normal students, the others were youth detention centre or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We separated group by whether they hav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checked the difference of mental health which was displayed on PAI and did a comparative analysis to subjects for whether they had suffered from domestic violence. The result of the study was that the juvenile who were imprisonment had mor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an the others. Also the PAI showed more ANX, SCZ, BOR, AGG, SUI, NCN, RXR, DCM, WRM levels than the others. In the relation with victimization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and risk of delinquency, the mental health shows mediating effects. In this case, mental health is anxiety(ANX), psychosis(SCZ), interpersonal problem(BOR), suicidal ideation(SUI), pass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WRM).

*Keywords* : *Victimization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Mental health, Risk of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